

# '꿈보다 해몽'...나를 더 이해하는 과정

## 블루오션, 꿈의 심리학

김정희·이호형 지음



지난밤 꾸었던 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후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갖게 된다. 꿈에 대해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다. 과연 꿈은 무엇일까?

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실제로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 나왔다. 상담전문가 김정희 씨와 계명대 신학과 교수였던 이호형 박사가 펴낸 '블루오션, 꿈의 심리학'은 꿈의 실체를 이야기해주는 꿈 해석서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도서(2018년 3월의 책)로 선정된 책은 구체적 실제 사례들을 문답법으로 풀어낸다. 부부인 이들 저자들은 '꿈 만 남집단' 모임을 통해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꿈을 통한 만남이 얼마나 진솔한 것인지 경험했다. 일반적으로 꿈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다.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개꿈'이라며 무가치하게 여기는 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인간의 삶 속에 꿈은 분명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인류와 함께해 왔다고 설명한다. 특히 꿈에 등장



'블루오션, 꿈의 심리학'은 꿈의 실체를 문답법으로 풀어내는 꿈 해석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하는 것 중 우연히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한다. "꿈은 비단 자신의 내면을 그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나 관심을 쏟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려주는 예지적 역할도 한다." 이처럼 꿈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린다. "나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나 자신으로부터 받으려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다.

저자들은 꿈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 문답식 해석법을 제시한다. 8단계의 구체적 사례를 매개로 꿈의 문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이 원리를 간단히 말하자면, 질문을 통해 형상(이미지) 언어로 표현된 꿈의 내용을 일상의 사고 언어로 변화시켜 꿈꾼 사람과 그의 삶의 실재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문답식 꿈 해석에서 꿈 해석은 일종의 '번역'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꿈 일지를 작성하라고 권유한다. 기록하는 형식은 무방하지만 내용은 일정한 순서에 따르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저자들은 "영화 제목을 붙이듯이 꿈의 내용을 한 마디로 보여주는 꿈의 제목을 적절하게 붙인다. 다음에는 날짜를 기록하고, 꿈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며 "이때 꿈을 꾸고 나서 느낀 감정, 꿈의 형상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연상들을 적는다. 그리고 전날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자신의 정서를 불러일으켰거나 관심을 사로잡았던 사건, 잠에 빠져들기 전에 하고 있었던 생각의 내용도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책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꿈 해석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꿈 해석을 위한 구체적 준비 작업', '개인적 꿈 해석의 실제 사례', '혼자서 하는 문답식 꿈 해석 사례', '꿈을 이용하는 집단 상담과 꿈 드라마', '예지적 꿈의 해석의 특징과 사례' 등이다. 무엇보다 꿈 해석의 가장 큰 효용은 꿈꾼 사람이 변하는 데 있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통찰은 꿈 해석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꿈 해석을 근거로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꾸준히 자신의 꿈을 해석하다 보면,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책 읽는 귀족·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사회계약론=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그 누구보다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체계를, 하지만 단순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것은 아닌 체계를 가졌던 문체적 인간 장-자크 루소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사회계약론'을 우리말로 새롭게 옮긴 책이다. 최근의 연구 경향 혹은 개념적 이해의 교정에 기초한 번역어 교체로 '사회계약론'에 대한 새로운 토론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후마니타스·1만6000원> ▲엠펙 발자국=시인 조은에게 죽음이 생을 들여다보게 하는 통로였다면, 기억은 과거를 반성하게 하는 매개였다. 이번 시집의 제목은 '엠펙 발자국'이지만 시인은 단지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작은 발자국들의 측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시인은 자기 스스로 지나온, 뒤에 남겨진 무수한 발자국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두보 오월리언절구=두보의 절구는 대체적으로 짧고 거칠다. 굳이 그윽한 운치를 추구하려 하지 않고 마구 울부짖으며 자신의 감정과 사회 현실을 노래했다. 전 아한 울림을 추구하는 당시의 풍조에서 두보의 거칠고 새로운 노래는 인기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의 이면에는 자신만의 개성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두보의 시 정신이 깔려 있다. 두보의 절구를 보면 두보와 한시에 대한 이해가 더 폭넓어질 것이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인공지능시대, 인간통역 40년을 돌아보다=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교수인 저자의 40년 통역사 인생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1983년 파리 유학에서 돌아와 올림피아직위, 대통령비서실, YTN 등에서 통역 현업을 마치고 1999년 모교에 임용됐다. 그 당시 조그만 출판사를 경영하던 아내가 "꼭 필요할 것"이라며 만들어 준 개인 홈페이지(www.jckwak.net)가 20년 동안 교수 생활의 동반자가 될 줄은 몰랐다. 그 홈페이지 내용의 1/10만 추려 이 책을 만들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1만6000원>

# 사회 초년병·미술 시장의 이면...젊은 작가 7명의 시선

## 2018 제9회 젊은 작가상

### 수상작품집

박민정·김세희 등 지음

출판사 문학동네가 지난 2010년 제정한 젊은 작가상은 등단 10년 이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매년 선정된 7편의 단편 소설은 요즘 한국 소설의 지평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출간된 '2018 제9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역시 흥미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작품집에 수록된 작가는 지난해 대상 수상작가인 임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음 등장하는 작가들이라는 점에서 새롭다.



대상 수상작인 박민정 작가의 '세실, 주희'는 세실이라는 친구를 가진 주희의 이야기다. 명동의 주주하우스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주희는 가수 유노윤호가 좋아한다고 알려진 일부인 직원 세실로부터 한국어 과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친해진다. 주희는 한국어로 가족에 관한 글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줬다가 그녀의 증조할머니가 아스쿠니 신사에 묻혀 있음을 알게된다. 김세희 작가의 '가만히 나날'은 이제 막 세상으로 나가 '살모있는 존재'가 됨을 기뻐하며 사회생활을 하는 초년병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블로그에 각종 홍보성 글을 올리며 회사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녀에게, 자신의 홍보글로 인해 피해를 당한 누군가의 메일이 도착하고 그녀는 혼란을 겪는다. '컨설턴트'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던 임성순의 '화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포식자들'은 미술계를 뒤흔든 재벌 비자금 사건의 여파로 몰락한 한 미술평론가의 모습을 각종 미술 용어와 작가, 작품 등에 대한 현란한 정보를 곁들여 그려낸 작품이다. "잉여의 돈과 시간이 없는 이들에게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장벽 너머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통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그밖에 버스 사고로 아내를 잃은 남편과 우연히 사고를 피한 운전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임현의 '그들의 이해관계', 안락사로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이모의 느닷없는 결정앞에 선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정영수의 '더 인간적인 딸', 식당에 모인 한 가족의 대화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에 대한 묘사가 오가는 최정나의 '한밤의 손님들', 실패한 게이 영화감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박상영 작가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등이 수록돼 있다. 한편 문학동네는 2010~2017년 수상작 중 7편을 선정, '2010~2017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동네서점 베스트 컬렉션'도 내놓았다. 지금까지 수상작 56편 가운데 동네 서점 56곳 주인공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7편을 수록한 작품집으로 동네서점에서만 판매한다. <문학동네·특별 보급가 5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어린이·청소년 책

▲김정호 끈기와 열정으로 평생의 꿈을 이룬 지리학자=우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리학자 하면 누구나 김정호를 떠올릴 것이다. 오늘날의 지도와 비교해도 그 정확도와 가치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지도인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 이야기 교과서 인물 '김정호' 편에서는 뛰어난 지도를 만들기 위해 평생 노력한 김정호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시공주니어·1만원> ▲또 혼났어!=이 책에는 혼내는 엄마에게 '자신의 이유'를 설명하는 아이가 나오는. 조목조목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말을 안 듣는 못된 아이'라기보다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심지어 영리해 보인다. 그만큼 아이의 이유가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엄마도 늘 완벽할 수는 없으니 짜증을 내거나 성급하게 혼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만드는 책이다. <뜨인돌어린이·1만2000원> ▲고래 대 새우=커다란 고래와 작디작은 새우가 등장한다. 고래는 몸집도 크고 힘도 세다. 고래들은 아름다운 새우를



에 찾아와 자기가 고래들의 대장이라며 싸움을 벌인다. 새우들은 만나지만 하면 싸우는 고래들을 말리기 위해 용기를 낸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힘이 세고도, 덩치가 크다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고래들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새우들은 과연 고래들의 싸움을 말릴 수 있을까? <키르도토리·1만2000원>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